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8. 1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러시아, 테러지원국 지정시 美와 단교 경고

- 8.2 러시아 「자하로바」 외무부 대변인은 “미국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경우 단교로 이어질 것이고, 선을 넘는 데 따른 모든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”이라고 경고

* 최근 美 의회와 우크라이나는 美 국무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토록 촉구

미 주

○ 美 FBI, 알카에다 수장 사망 후 아프간 테러 가능성 고조 우려

- 8.5 美 FBI 국장은 지난해 아프간 철군 후 안보환경 악화를 틈타 알카에다·ISIS 등이 재준동하고 있으며, 특히 최근 「알 자와히리」 사망에 따라 反美 테러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 표명

아 · 태평양

○ 해양수산부, '22년 상반기 '全世界 해적 피해' 대폭 감소

- 8.4 해수부는 '22년 상반기 全世界 해적 사건 동향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해적 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15% 감소(58건 발생)하였으며, 특히 우리 국민·선박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

* 우리 국민 피해 감소 원인으로 △아덴만 해역 청해부대 파병 △해적피해 고위험해역 설정 및 진입제한 등 적극적 예방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

○ 아프간, 수도 카불에서 이틀 연속 폭탄테러로 수십명 사상

- 8.7 아프간 현지언론은 8.5~6 카불의 소수 시아파 거주지역에서 이틀 연속 폭탄 테러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, 사건 직후 ISIS가 선전 매체를 통해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- * ISIS 호라산지부는 아프간 인구 85~90%를 차지하는 수니파로 구성된 테러 단체로, 소수인 시아파를 배교자로 칭하며 시아파 겨냥한 테러를 지속 자행

중 동

○ 예멘정부 - 후티 叛軍, 휴전 2개월 연장 합의

- 8.3 UN 예멘 특사는 예멘 정부와 후티 叛軍이 4개월간의 휴전 종료를 앞두고 휴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며, 양측은 빠른 시일내에 '확장된 휴전 협정'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언급
- * 6개월 휴전연장을 추진했으나, 성사되지 못했다고 부연

○ 이스라엘-팔레스타인간 휴전(8.7) 불구 유혈충돌 재발 가능성 잠재

- 8.7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5일부터 가자지구 내 무장단체 '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' 거점을 공습, 고위급 지휘관 등 다수가 사망하면서 무력충돌이 발생한 이후 휴전에 합의(8.7)했으나 재발 가능성 보도
- * 이러한 강도 높은 공세의 배경으로 오는 11월 선거에서 연임을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 「야이르 라피드」 임시 총리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

아프리카

○ 소말리아, 알샤바브 공동 창설자 종교장관으로 임명

- 8.3 소말리아 정부는 알샤바브 공동 창설자이자 대변인이었던 「무크타르 로보우」를 종교장관에 임명, 언론은 알샤바브 출신 장관을 전격 기용해 더 많은 전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
- * 同人은 美 정부로부터 국제 테러리스트로 지목된바 있으며, '17년 알샤바브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소말리아 정부쪽으로 전향

이라크, ISIS에 의한 연쇄 차량폭탄 테러

- '13.8.10,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와 인근지역 시아파 거주지의 시장·공원 등에서 연쇄 차량폭탄테러가 발생, 74명이 사망하고 320여명 부상
- 테러는 폭탄을 실은 차량이 이라크 북부 쿠르마투市的 주거지역으로 돌진한 것으로 시작되었으며, 짧은 시간(약 1시간) 동안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 발생
 - * 현지 경찰에 따르면 바그다드에서만 최소 11건 이상의 차량 폭발 발생
- 사건 발생 이틀 후 ISIS가 同 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 - ISIS는 웹사이트 '지하디스트 포럼'을 통해 “이슬람 국가 건설을 위해 치안 부재를 부각하는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”고 주장하며, “시아파들은 앞으로 계속 불안에 떨어야 할 것”이라고 경고
 - * ISIS는 수니파로 구성된 테러단체로, 시아파를 배척하며 각종 테러 자행
- 한편, 이날은 라마단 종료를 기리는 이슬람 최대 명절 '이드 알피트르' 연휴 이틀째로, 당시 이라크에서는 라마단 기간 중에도 각종 테러로 671명이 사망함으로써 역대 최악의 라마단으로 기록

< 이슬람 聖月 '라마단' >

- (라마단) 이슬람 창시자 「무함마드」가 천사로부터 코란을 계시 받은 것을 기리는 신성한 달로, 이 기간 무슬림은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의무적으로 금식하고 하루에 5번 기도
- (기간) 초승달을 기점으로 시작되며, 이슬람력은 윤달이 없어 태양력보다 11~12일이 적기 때문에 매년 빨라지는데 종교 전문가단이 초승달을 관측하여 라마단 시작일자를 공표
- (테러리즘 관련성) ISIS·알카에다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는 라마단에 대한 무슬림의 믿음을 악용해 테러를 순교로 포장하고 라마단 기간중 지하드(聖戰)*를 실행하면 천국행이 약속된다고 하며 테러를 자행할 것을 선전·선동
 - * 이슬람교의 신앙을 전파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벌이는 이교도와의 투쟁